

# 장수한우 암소 개량 총력

### 군, 25두 우량 암소 구입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등 수정란 생산·보존 박차



장수군은 한우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을 위한 수정란을 매년 500개를 생산해 보급하고 있다.

장수군은 그동안 한우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번식 암소 개량을 위해 한우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을 위한 수정란을 매년 500개를 생산해 보급하고 있다.

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유전자뱅크와 연계해 우량 암소의 수정란 생산·보존 및 농가보급, 우량 암소가 지능분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우 번식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한우 번식기반의 점진적 붕괴와 송아지 값 고공행진으로 장수한우의 관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매년 생산되는 500개의 수정란 중 200여개는 축산농가의 번식우에 이식하고 100여개는 유전자뱅크 자체 보유 번식우에 이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여개는 번식기반 붕

괴 대비 및 미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수한우 유전자뱅크에서 많은 수정란을 생산 할 수 있는 OPU(Ovum Pick-Up) 최신 기술의 습득이 완료됨에 따라 OPU생산장비를 유전자뱅크에 보급 하여 2018년도에는 25두의 고능력 암소를 구입하여 우수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많은 수정

란 생산·보존을 통한 암소 개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뿌리)산업 발전만이 장수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타 시군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장수한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인구늘릴 비책있다”

###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무주군 당면 문제인 인구 유입을 위해 군수 직속 '무주 미래준비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 미래준비팀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등 무주주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준비팀은 인구감소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작목변화 등에 대비로 농가, 농업전문가 등 포럼과 TFT 구성·운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 후보는 "인구유출 방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그 첫 방안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무주군 예산의 1.4%인 교육 예산을 2%까지 증액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장년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청장년 신규 취업정책'의 시행으로 귀농 청장년들이 일정기간동안 농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의 귀촌 활성화의 방안으로 농업이외에 관광·레저 등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 무주군, 정부 보급종 벼 생산 주력

무주군이 내년도 정부 보급종 벼(품종 운광) 생산(1,677톤 목표)에 주력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채종단지는 안성면 공정리 일원 21농가/17ha로,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원종을 인수받아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이앙기부터 출수기까지 생육기별로 발생하기 쉬운 도열병, 문고병 등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또 채종 포장에 다른 품종이 섞여 있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것, 작황이 불량한 것, 포장조건과 격리재배 기준에 미달되는 포장을 걸러내기 위해 포장검사도 실시한다.

포장검사는 유숙기부터 호숙기 사이에 한 번 하는데, 포장전체를 관찰하는 달관검사를 한 후 표본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가들은 "정부 보급종 생산이라는 자부심으로 벼 생산에 정성을 쏟고 있다"라며 "병해충 없이 잘 키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원 작물환경담당은 "인정적인 보급종 벼 생산·공급을 위해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어르신 공경하는 진안 만들 것”

###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는 지난 28일 성수면 외곡리에서 공공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후보는 어르신들과 대화에서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전통음식전수교실 및 판매장운영 등 어르신



들의 행복한 노후를 약속했다. 특히 마이산의 세계적 관광지와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화폐사업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레지오넬라증 예방활동 만전

### 대형건물, 요양병원 등 10곳 선정 사위기·냉각탑수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 실시

무주군이 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대형건물과 요양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찜질방 등 총 10곳을 선정해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집단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지도와 예방 수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관리자들이 급수시설과 냉각탑 등에 대한 시설 점검, 청소,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

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여름~초가를 주로 발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사위기, 분수, 분무기 등 오염된 물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되는 감염증으로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김영림 감염병 관리 담당은 "무주군에서는 지난 4년 간 발생환자가 보고된 바 없지

만 올해만 해도 전북 지역에 2명 전국적으로 1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미리 수립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한편 군민들의 인식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지오넬라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탕이나 온천, 숙박시설 이용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호흡곤란, 또는 마른기침이나 복통, 설사 등 의심증상이 나타내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무주=전문선 기자

## ‘소통과 경청’ 선거운동 지속

###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

장수군수에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김창수 후보(전 장수농협 조합장)가 29일 전북지역의 주요 NGO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정북참여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정책제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김창수 후보는 "소통과 경청을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삼은 제가 전북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의회 등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까지 수용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성격 그리고 장수군의 지역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전면 수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수 후보는 "전북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8가지 공약사항 가운데 기초 의회 등에서 결정해야할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 공약을 수

용하기로 발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수용해야 하는 공약 사항까지 수용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24일 전북 참여연대는 '우리지역 살리는 8가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 기구 설치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감사위원회 설치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행정정보공포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어린 사과 낙과피해 심각

진안지역에 어린 사과 낙과피해가 심각해 사과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졌다. 사과 과수원마다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낙과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사과 수확량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 농업부서는 피해실태 조사와 함께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원인은 지난해 생육기(7~10월)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인한 저장양분 감소, 올해 4월 개화기간 저온에 따른 수정불량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과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낙과현상 발생이 심한 과원은 적과작업을 늦추고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수세가 강한 과원은 영양제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